

합성부터 시작한 우리 화성산업(6)

2.3. 수요추정과 협회의 통계

이렇게 중요한 증설한도 산정(算定)의 기본이 되는 수요추정의 방법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 갔다. 즉 심한 한발로 흉년이 들어 내수신장이 둔화된 해나, 5.3조치(64년 5월 3일의 환율인상 130:1 → 255:1) 등으로 수출이 급성장할때에 도입하는 계산수식(計算數式)이 달라지게 되는데, 이런 것도 기업의 측각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. 수요추정의 결과가 신증설 한도를 낳고, 이 한도의 많고 적음이 개별기업의 몫에 영향을 주고, 이것이 쌓이면서 기업 격차를 만들기 때문이었다. 2차 함수를 사용하는가 하면, 로지스틱곡선(logistic 곡선(曲線): S 커브로서 일정 시점까지 급성장하다가 그 시점을 경과하면서 성장이 급격히 둔화)을 도입하기도 했다. 보는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. 그리하여 한 때는 장기 수요추정을 제3의 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소(白永勳)에 용역을 주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.

우리 나라의 수출입이 활기를 띠는 것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, 60년대 말에만 하더라도 동 계획의 진전에 따른 시설재 및 원부자재의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여타 상품의 수출입은 극히 미미하였다. 상품구조 역시 아주 단순한 때이어서 SITC 코드(code)가 네 자리 또는 다섯 자리까지 구분되고 있었는데도 큰 불편이 없었다. 지금은 상품도 다양하고 복잡하여 CCN 코드를 거쳐, HS 코드 열(10)자리까지 수출입상품을 세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국제협약에 따라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SITC 코드를 그렇게 사용했었다. 무역통계상의 수출입이 이같이 네 자리로 구분되어 ‘6516 합성섬유의 장섬유사’ 또는 ‘2663 재생섬유의 단섬유’로만 구

분되어 있으니 나일론 장섬유, 아크릴 단섬유가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, 즉 품목별 수입량을 알 길이 없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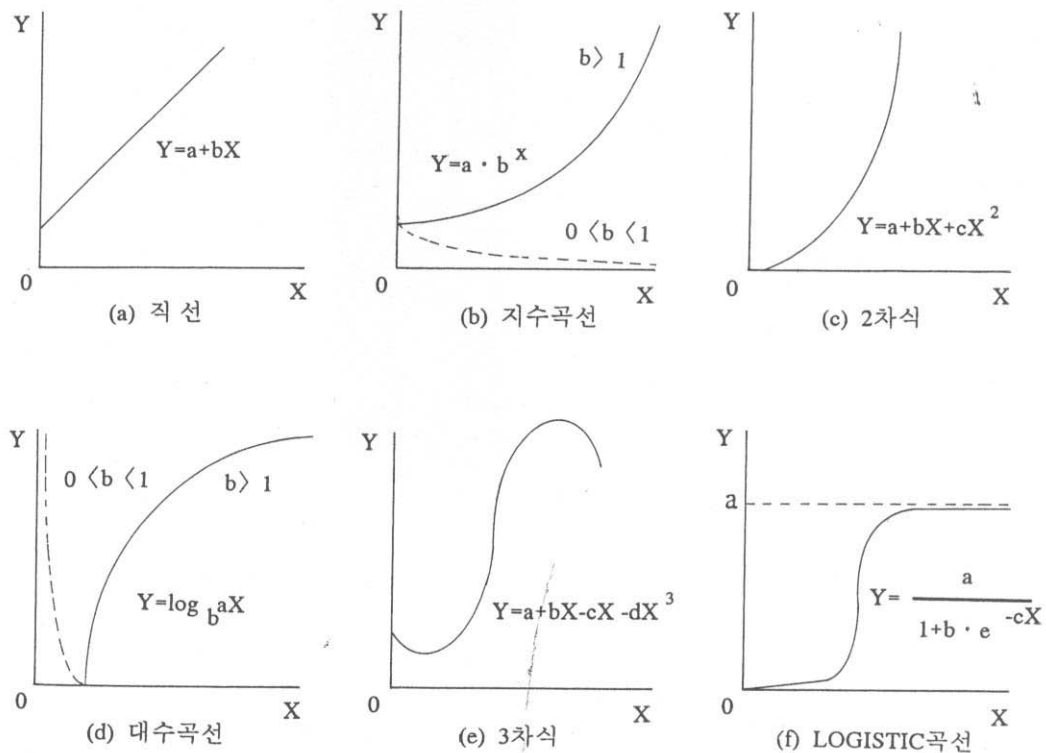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1 수요추정 계산식과 곡선

수요측면의 수출통계는 수출인증 과정에서 나올 수 있고, 공급면에서의 품목별 생산은 협회에서 집계되지만, 수입수량이 파악되지 않고서는 수요를 제대로 예측할 길이 없기 때문에 화섬협회는, 1967년부터 수입면장을 하나하나 체크하여 품목별 규격별 화학섬유 수입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. 그때까지 각 사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사 파악하던 숫자보다 협회에서 내놓는 통계물량이 많음으로 놀라움과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였었지만,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규격까지 명기한 통계가 매달 집계되어 나옴에 따라 신뢰를 받게 되고, 신뢰가 쌓이면서 협회의 통계는 이 중요한 수요추정의 기초자료로서 이용되

게 되었다.

이와 같이 10수년 동안 화섬수입통계가 축적되어 오는 가운데 국제 상품 분류가 세분되어서 별도로 수집계할 필요가 없어지고, 무역협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무역통계에 수정없이 그대로 접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 현재도 품목별, 데니어(denier)별로 통계를 작성하여 그 섬유의 용도별 추이를 알 수 있게 하는 곳은 한국화섬협회 이외에 세계 어느 기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.